

일제강점기 강평국의 생애와 여성운동*

-기고문 「女子解放의 雜感」을 중심으로-

이재섭**

- I. 머리말
- II. 여성운동가 강평국의 생애
- III. 강평국의 「女子解放의 雜感」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강평국이 1925년 6월과 7월, 동아일보에 2회에 걸쳐 기고한 글 ‘女子解放의 雜感’을 중심으로 강평국의 생애와 여성운동, 여성해방론에 대해 분석한다. 강평국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삶에 적용하였고 제주 사회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작은 불꽃을 전하고자 한 여성운동가였다. 제주 최초의 여학교인 신성여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으로 유학을 떠나 관립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다니면서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강평국은 졸업 후 제주 여성의 교육을 위해 ‘여수원’을 설립하였으며,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 의학도로 학업을 잇는 한편, 유학 중에도 조국의 독립과 여성 해방을 위한 헌신했다. ‘女子解放의 雜感’은 여성을 업신여기는 사회적 풍토에 대항하며 여성을 노예로 취급하고자 하는 다수의 남성들을 향한 글이자, 우매한 여성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촉구하는 글이다. 강평국은 여성에게도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교육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7220).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E-mail: blueways@naver.com)

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여성운동가로서 남성들에게 예측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통한 여성해방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신문의 기고문이지만, 강평국이 직접 쓴 글로 유일하게 전해지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강평국, 제주, 독립운동, 여성운동, 여성해방

I. 머리말

2019년 8월 15일, 故 강평국은 광복 74주년을 기념한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일본에서의 독립운동 활동이 인정되어 건국훈장 애족장(일본방면)을 수여받았다.¹⁾ 1919년 3·1운동에서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의 만세운동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건국훈장 애족장은 일본에서의 독립운동으로 수여받게 된 것이다. 강평국의 불꽃같은 삶에 비추어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한 일이다. 당시 제주는 밀려오는 외세의 침탈과 천주교를 포교하기 위해 제주에 도착한 선교사들, 그들을 염려하고 경계하던 제주인들 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이후 1901년 이재수의 난으로 불리는 신축교란이 일어났다. 신축교란에 아버지를 여윈 강평국은 제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신성여학교²⁾에서 보통학교 교육을 받았다. 이후 경성으로 유학을 떠나 관립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다니면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관립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하고 귀향한 강평국은 제주 여성의 교육을 위해 최정숙³⁾과 함께 여수원을 설립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으

1)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mpva/main.do>(검색일: 2019.8.14.)

2) 신성여학교는 1909년 10월에 프랑스인 선교사 마르셀 라크르(具瑪瑟) 신부가 우리나라의 낙후된 여성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제주도 최초의 여학교로,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향사당을 교사로 하여 4년제 보통과로 출발하였다. 현재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신성여자중·고등학교다.

3) 최정숙(1902~1977)은 당시 전라남도 제주읍 삼도리 태생으로 1914년에 신성여학교를 졸업하고 강평국과 함께 관립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서 수학하였다.

며, 고향 제주를 떠나 일본 동경에서 의학도로서 학업을 잇는 한편, 유학생들의 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조국의 독립과 여성 해방을 외쳤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강평국 사후 그와 같이 공부했던 최정숙과 고수선, 그리고 그에게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제주 지역 여성 교육과 여성운동을 위해 헌신하였다.

그는 ‘조국이 평화를 찾는 그날까지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겠다.’⁴⁾며 강년국(姜年國)이던 이름을 강평국(姜平國)으로 바꾸었으며, “이 사회는 남존여비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여자라고 반드시 남성들에게 뒤지란 법이 없지 않은가. 결코 뒤질 수 없다.”⁵⁾며 여성의 강한 결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부재한 기록과 사람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 강평국의 삶은 거센 파도가 밀려오던 시대에 파란만장함 그 자체였다. 강평국이 유명을 달리한지 어언 86년,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적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강평국의 활동과 사상에 대해 개괄적인 소개와 주변인의 증언만이 있었을 뿐 그 내막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본고는 강평국이 1925년 6월과 7월, 동아일보에 2회에 걸쳐 기고한 글 「女子解放의 雜感」을 통해 강평국의 생애와 여성운동에 대해 분석한다.

1. 선행 연구 분석

강평국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1998년 허영선 작가가 쓴 「불꽃의 여인 강평국(姜平國)」으로 이 글은 제주문화원에서 기획하여 발간한 『제주여인상』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강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 중에 검거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으며, 이후 제주 교육에 앞장서며 여수원과 명신학교를 설립하는 등 여성 교육에 애를 썼다. 늦은 나이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제주시 삼도리에 정화 의원을 개원하여 의술을 펼쳤다. 신성여자중고등학교 교장과 초대 제주도교육감을 역임하였으며, 사회봉사에도 앞장 서는 등 지역 사회에 큰 공헌을 남겼으며 1977년 작고하였다.

4) 제주발전연구원, 「불꽃의 비극, 현실의 영광」, 『제주여성문화유적 100』, 2009, 48쪽.

5) 허영선, 「불꽃의 여인 강평국」,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424쪽.

평국의 삶을 평전의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허영선의 글과 강평국의 3·1만세운동을 다룬 논문, 일본에서의 독립운동을 다룬 논문과 제주 여성 인물을 다룬 모음집에 포함된 글, 강평국 관련 문헌 자료 등을 검토한다. 이 장에 제시된 자료들은 강평국의 교사 임명 관련 자료 등과 최정숙과 고수선, 최은희⁶⁾ 등의 회고 자료, 최정숙과 최은희의 신문조서 및 보고서 등이다. 강평국이 직접 작성한 자료가 아니며, 강평국의 지인, 제자, 친구 등의 구술에 의해 정리된 내용이 다수이다. 강평국과 관련하여 1차 자료가 부족한 점도 강평국 연구가 지지부진한 이유이겠지만, 구술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행정편람 수준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표-1〉 강평국 관련 자료 목록(발행 연도 순)

No.	제목	저자	형태	연도	주관/출판
1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13권』	-	업적	1996년	국사편찬위원회
2	『제주항일독립운동사』	-	업적	1996년	제주도
3	「불꽃의 여인 강평국」 『제주여인상』	허영선	평전	1998년	제주문화원
4	일제 강점기 제주 출신 재일 여성 활동가들의 투쟁	김인덕	논문	1999년	제주도사연구

6) 최은희(1904~1984)는 조선 최초의 여기자로서 1919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하고 1919년 3.1운동에 참가하여 서대문 형무소에 24일간 구류되었으며, 동년 황해도 백천에서 만세시위 주동자로 구속,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다. 1924년 조선일보사에 '부인기자로 입사, 한국 최초의 여기자가 되었고, 1927년 근우회(槿友會)의 창립에 참여, 재무부장, 선전부장 등 역임하였으며 1940년 여권실천운동자클럽 회장, 1945년 일간지 <여성신문> 자문 등을 역임하였다. 1973년 『조국을 찾기까지: 1905~1945』라는 제목으로 한국여성활동비화를 출간하였으며 1984년 작고하였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최은희는 책의 서문에서 경성여고보는 전국의 수재가 모이는 학교로 민족운동자들의 관심이 컸고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실패를 산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 독립선언을 준비하던 33인 측에서 직접 지도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성여고보의 3·1만세운동이 저자를 중심으로 일어났던바 자신이 겪어온 사실들을 소상히 기록함으로 시대를 반영하는 귀중한 사료에 이바지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최은희, 『조국을 찾기까지 中』, 탐구당, 1973).

5	『제주 천주교 100년사』	-	교회사	2001년	천주교제주교구
6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	박찬식	업적	2005년	제주도
7	『제주여성 문화유적 100』	김순이	수록집	2009년	제주발전연구원
8	『제주여성사Ⅱ-일제강점기』	-	업적	2011년	제주발전연구원
9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양진건 외	업적	2011년	제주도 교육청
10	강평국의 3·1운동 참여와 수감	한금순	논문	2019년	제주도연구

허영선(1998)은 제주문화원에서 발간한 『제주여인상』이라는 책에 「불꽃의 여인 강평국」이라는 제목의 강평국 평전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강평국과 관련한 이야기로 출간된 유일한 자료이다. 이 책은 어려웠던 제주의 지리적, 역사적 환경을 극복한 제주여인의 삶을 부각시켜 제주여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허영선은 강평국의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젊은 나이에 요절한 강평국의 삶을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김인덕(1999)은 일본에서 활동한 제주 출신 여성운동가들의 투쟁을 다루면서 강평국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주목하여, 강평국이 1920년대 주요 재일조선인 여성운동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강평국은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고, 1927년 1월 조선여자청년동맹 초대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1927년 3월에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동경 동부 조선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부인부 책임과 1928년 1월 22일 근우회 동경지회 의장 및 정치문화부 간사를 맡았으며, 그 해 늑막염으로 몸이 쇠약해져 귀향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금순(2019)은 강평국의 3·1운동 참여 활동을 다루고 있다. 강평국은 박희도가 이끄는 비밀서클에 참여하였으며, 경성여고보 학생들을 이끄는 수령급 학생 중 하나로 3월 1일 만세운동과 3월 5일 남대문역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불러 같은 학교 학생 7명이 함께 수감되었다가 3월 24일에 석방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강평국의 수감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최은희의 회고를 통한 기록으로 수감내용을 살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박용옥 외에 의하면 3·1운동으로 수감된

신성여학교 출신의 재판기록과 보고서는 최정숙의 자료가 유일하며⁷⁾, 박찬승의 연구를 살펴보면 3월 5일 검거된 자 중 재판에 회부된 20,077명 중 여학생은 6명이었으며, 이들은 이화학당 노예달, 유점순, 정신여학교 김경순 등으로 강평국 등 경기여고보의 학생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⁸⁾ 이를 통해 구금 된 후 석방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제주여성 문화유적 100』, 『제주여성사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발간한 『제주 천주교 100년사』,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13권』 등에도 강평국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여기에는 강평국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들로 대부분 간략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강평국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내용은 최정숙 및 최은희의 신문조서 및 보고서 등과 최은희·최정숙·고수선 등의 회고록을 통해 확인될 뿐 직접적인 자료가 부재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다수의 자료들은 1998년에 출간된 『제주여인상』에 수록된 허영선의 글 「불꽃의 여인 강평국」을 인용한 내용이 많다.

Ⅱ. 여성운동가 강평국의 생애

강평국은 10세에 새롭게 문을 연 가톨릭계 신성여학교에 입학하였다. 허영선은 “강평국이 일찍 개화한 가문에서 태어나 별다른 갈등 없이 학문을 할 수 있었고, 이때부터 몸에 밴 사상이 훗날 남녀평등과 여성운동을 벌이게 된 단초”로 보았다.⁹⁾ 강평국은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신성여학교에서 민족정신을 배우며 나라 잃은 설움을 깨닫게 되었고, 신성여학교의 교사였던 김아나타시아 수녀와 이곤자가 수녀에게 깊은 영

7) 박용옥·윤선자·박경목·김용달·반병률,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I』, 국가기록원, 2016.

8) 박찬승, 「3·1운동기 서울의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의 재구성-3월 1일과 5일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5, 2019.

9) 허영선, 「불꽃의 여인 강평국」,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425-426쪽.

향을 받으며 학업에 열중하였다. 그는 신성여학교를 졸업하고 경성 유학길에 올라 관립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와 동 학교 사범과에서 수학하였다. 한일병합 이후 강평국은 민족의식을 깨우치며 학업에 힘썼으며, 1학년생이던 1917년부터 박희도¹⁰⁾의 지도로 비밀서클을 만들어 활동하며 3.1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¹¹⁾ 사범학교 졸업을 앞둔 1919년 3월, 교우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3월 5일에는 남대문 역 앞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해 검속이 되었으며¹²⁾, 졸업 후 제주도로 귀향, 교사로서 문맹퇴치와 교육을 통한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조선의 역사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하였다.¹³⁾ 여수원¹⁴⁾의 설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제주 지역에서 여성 교육의 저변 확산에 앞장섰다.

1. 학생들의 3·1만세운동 주도: 독립운동의 시작

1919년 3·1운동 당시 강평국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재학중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강평국의 활동은 같은 학교 본과에 재학중이던 최은희의 신문조서와 최정숙의 창덕궁경찰서 조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과 성행 조회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과 성행조회 기록 중 최은희 보고

10) 박희도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다. 3·1운동 후 체포되어 3년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이후에도 독립계몽운동에 헌신, 교육운동에 이바지 하였으나 이후 전향하여 일제의 정책에 협력, 일선융합(日鮮融合)을 표방한 단체 활동,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촉구, 황민화, 헌납 권장 등을 역설한 친일 행적으로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어 조사받았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1408).

11) 박용옥·윤선자·박경목·김용달·반병률,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I』, 국가기록원, 2016, 101쪽.

12) 최은희, 『조국을 찾기까지 中』, 탐구당, 1973, 104; 허영선, 「불꽃의 여인 강평국」,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429-430쪽.

13) 허영선, 「불꽃의 여인 강평국」,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430쪽.

14) 여수원은 신성여학교의 폐교 이후 1921년 여성교육을 위해, 명신학원은 남자 여자 모두의 초등교육을 위해 강평국과 최정숙이 만든 야학이다(신성학원총동문회, 『신성백년사』, 2009, 62쪽).

서에 의하면 “이번 소요에 관해서 본인은 이미 남학생 측에게서 2월 26·7일 경에 독립운동소요의 상의를 받은 모양이며, 그 27일인지 28일 경에는 동숙생 최정숙, 강평국, 유재룡, 이명숙, 고수선, 김일조 등과 상의하고 다만 그 시기가 도래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행적이 충분하여 그 학교에서 수령급은 본인 및 최정숙, 강평국이 수령급의 주된 자”¹⁵⁾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같은 문서의 최정숙 보고서에는 “학생 소요사건에 관해서 그 학교 직원은 말하기를 본인은 이미 지난 달 27·8일 경부터 그 학교 기숙사생 崔恩禧, 姜平國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계획을 학생 사이에서 밀의한 흔적이 뚜렷”¹⁶⁾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성여학교 출신 독립유공자인 고수선의 자필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강평국의 활약상을 찾아볼 수 있다. “강평국과 나는 외부 연락을 했다. 박규훈¹⁷⁾씨가 창으로 상황 설명을 하고 우리는 끝까지 종로경찰서 앞까지 갔다. 경성역에 당도, 용산서 총을 쏘아대자 바로 세브란스병원으로 피신, 4인이 약속키를 우리는 끝까지 계속 일할 것을 약속, 제동 유철경 선생 댁에서 등사, 머리동이를 만들어 박규훈 씨에게 전달. 최선생(최정숙)은 종로로 가다 대중에 휩쓸렸다가 체포 수고는 강 선생이 많이 했다”¹⁸⁾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당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최은희의 저서 『조국을 찾기까지』를 보면 제주 출신 학생들의 3·1만세운동 활약상을 찾아볼 수 있다. 최은희가 글을 쓰던 때는 1960년에서 70년 초반 무렵으로 최정숙과 고수선은 제주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던 상황이었다.¹⁹⁾ “나는 동급생을 비롯하여 본과·기예과·사범과에 골고루 손을 펴서 동지를 규합하기 위하여 하숙집을 나와 기숙사로 들

15) 국사편찬위원회, 「三·一 獨立宣言 關聯者 訊問調書, 京城女子高等普通學校 示威關聯者動情及性行調回」,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3권三·一運動 III, 1990.

16)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자료, 1990.

17)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 3·1운동 당시 경성고보 2학년 학생으로 참가

18) 고수선의 자필 기록.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교사 제주여성1호 강평국」,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 2005, 48-49쪽 재인용.

19) 두 사람에 비해 강평국에 대한 평이 없는 까닭은 이미 작고지 40여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강평국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고, 그런 연유로 특별한 수식어가 붙지 않았으리라 사료된다.

어갔다. 우리들 4인 이외에 최근 제주도 교육감을 지낸 최정숙, 현 제주도 홍익보육원장 고수선과 강평국 …(중략) 등이 그때의 멤버들로 중추인물”²⁰⁾, “그날 밤 제주에서 유학하는 두 남학생이 비밀히 제주 학생 최정숙·고수선·강평국을 만나고 갔다. 우리는 제 나름대로 봉대를 만들어 속치마 호주머니에 넣는 등 내일의 사태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마음 집히는 대로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²¹⁾라고 기록되어 있다.

강평국이 관립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할 무렵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승하하였고, 이는 3·1만세운동으로 이어졌다.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선구적 여성단체들은 오랜 봉건적 압제에서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여성 해방의 일환으로 여성의 교육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 되었으나 일본의 식민 지배가 기점이 되어 한국의 여성운동은 구국운동이 매개가 되어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독립을 위한 운동의 형태를 비밀결사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3·1운동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강평국과 같은 근대적 교육을 받은 청년들과 여학생들이 만세시위를 주도할 수 있었고 선언문을 인쇄, 배포하는 등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20세기의 태동은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의 이름으로 시작된 남성 중심의 역사를 인식하게 된 시작점이었다.²²⁾

2. 여성 교육에 이바지: 여성 운동의 시작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강평국은 이후 졸업식에 참석해 일본 국가를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졸업을 포기한 채 고향 제주로 낙향했다. 나중에 졸업장은 우편으로 배송되었다.²³⁾ 그는 1920년

20) 최은희, 『조국을 찾기까지 中』, 탐구당, 1973, 93쪽.

21) 최은희, 같은 책, 97쪽.

22) 강이수, 「근대 한국 100년과 여성의 삶」, 『경제와 사회』 44, 1999, 125쪽.

23) 허영선, 「불꽃의 여인 강평국」,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430쪽.

전라남도 공립진도보통학교 교사로 첫 부임²⁴⁾하였으며, 제주여자장학회를 조직, 여학교 설립 준비를 하였다.²⁵⁾ 1921년 제주 지역 여성운동의 시초인 ‘여수원’을 최정숙과 함께 설립하여 여성 교육에 이바지 하였고, 이후 명신학교에서 교사를 역임하는 등 제주 여성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2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읍 공립조천보통학교(현 제주시 조천읍)에 부임하였다. 강평국은 여성들이 공부를 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사회의 억압 속에 핍박 받는 여성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 하는 길이라 믿었다. 누구보다 단호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녔던 강평국은 엄한 선생으로 학생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성격의 강평국은 후학들에게 교단에서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을 이야기하였다.²⁶⁾ 강평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일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는 제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여성들이 나라에 봉사하는 길은 공부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다. 공부하다 졸음이 오면 ‘대한독립만세’를 외쳐야 한다고 말하며, 조선의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었다. “나라에 봉사하는 길은 여성도 공부하는 길이다. 공부하다 졸음이 오면 대한독립만세를 불러라. 이 나라는 기필코 독립이 되어야 한다.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 한다.”²⁷⁾

모교인 신성여학교의 폐교와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최정숙과 강평국이 학생을 모아 야학의 형태로 시작한 여수원(女修園)은 “우리 깨어나자!”라는 학생 모집 슬로건으로 150명까지 늘어나고 주간에도 초등과정까지 개설되었다. 이처럼 여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었던 배경은 3·1운동 이후 제주 사회의 분위기, 신성여학교의 옛 명성, 최정숙과 강평국, 고수선을 중심으로 만든 여자장학회, 부인회 등의 조직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최정숙

24) 강평국의 첫 부임지에 대해서는 대정읍 대정보통학교에 처음으로 부임했으며, 제자의 증언이 남아 있다. 하지만, 공식 문건(국사편찬위원회 직원록자료)으로는 1920년 전라남도 공립진도보통학교에 부임한 기록이 가장 앞선다. 다만, 박찬식에 의하면 강평국의 오빠 강세독이 대정공립보통학교에 근무한 인연으로 그를 불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박찬식, 2005).

25) 박찬식, 「교사 제주여성1호 강평국」,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 2005, 50-51쪽.

26) 박찬식, 앞의 글, 2005, 47-54쪽.

27) 허영선, 「불꽃의 여인 강평국」, 『제주여인상』, 제주: 제주문화원, 1998, 424쪽.

과 강평국은 신성여학교의 부활을 꿈꾸며 여수원에 열성이었고 훗날 이들의 대를 이어 제주여성 교육에 힘쓴 김서옥 등이 여수원 출신이었다.²⁸⁾

이송희(2014)는 근대 여성 교육이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여성들을 길러냈으며, 과연 그 여성들이 근대 여성 교육을 통해 주체적 여성으로 살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교육받은 여성들이 당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았고, 당시 여성운동과 사회운동과는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음²⁹⁾을 논한다. 이는 제주 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평국과 최정숙이 주도했던 여성 교육의 산실이었던 여수원에 대한 평가와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며, 당시의 여성교육운동이 여성운동과 여성해방에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상태다. 이러한 연유로 강평국이 매진했던 1920년대 제주 여성교육에 대한 연구도 한계를 가진다.

3. 여성운동가 강평국의 여성해방론

1920년대 여성운동은 여성문제가 사회적 모순구조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타파하려는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이와 같은 변화를 뒷받침 한 것이 여성해방론이었다.³⁰⁾ 이는 억압된 구시대의 관습을 타파하고, 해방된 여성문화를 창조하여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남자와 동일한 주체로 사회적 의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였다.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역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³¹⁾ 이와 같은 시기에 새로운 교육의 수혜를 받았던 강평국은 유교 사상의 굴레에 얽힌 가부장제적인 사회의 담론과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상황

28) 신성학원총동문회, 『신성백년사』, 2009, 62쪽.

29) 이송희, 『근대사 속의 한국 여성』, 국학자료원, 2014, 321쪽.

30) 이송희, 「1920년대 女性解放論에 관한 研究」, 『역사와경계』, 25·26, 1994, 82쪽.

31) 신영숙, 「日帝下 韓國女性社會史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7쪽.

에 맞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을 지녔다. 강평국이 교사가 되었던 이유 또한 사회의 질곡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육이라는 믿음이었으며, 그는 교육을 통해 남성들과 평등해 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최정숙과 함께 여수원을 설립하여 제주 여성을 위한 보편적 교육에 앞장섰다. 그의 교육운동은 여성운동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단지 교육을 통해서 여성해방에 다다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고민은 여성운동으로서의 여성해방에 매진하게 만들었다.

강평국은 1925년 12월 26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 여자 청년회 창립총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아 강령과 규약을 통과 시켰다. ‘힘써 배우고, 굳센 단결로 삶의 권리와 자유’를 찾는다는 강령과 여성 해방운동과 이에 필요한 지식의 함양에 힘써야 함을 주장하였다.³²⁾ 또한, 1927년 8월 3일 오후 7시 일본 동경시외 고전회관(高田會館)에서 재일본 조선노동총동맹과 동경조선노동조합서부지회 주최로 신간회 동경지회 노동농민당 성서지부 후원으로 진행된 조선총독 ××정치폭로 연설회에서 총독정치 탄핵연설을 통해 세계무산계급만세 등 시위운동을 함께 이끌었다. 탄핵연설을 한 34명 중 한 명인 강평국은 재동경조선여자청년회를 대표하여 탄핵 연설을 하였으며, 탄핵연설 이후 50명이 검속되었다.³³⁾

여기에서는 탄핵 연설 이전의 기고글인 「女子解放의 雜感」을 통해 강평국의 여성해방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강평국의 「女子解放의 雜感」

강평국이 기고한 「女子解放의 雜感」은 1925년 6월 1일과 7월 20일 2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발표되었다.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30매 정도이다. ‘잡감(雜感)’은 여러 형태의 잡다한 느낌을 말하며, 수필 형태

32) 시대일보, 「女子青年會創立者 濟州女性의 新旗幟」, 『時代日報』 (1926.1.3.).

33) 중외일보, 「總督政治彈劾 檢束者五十」, 『中外日報』 (1927.8.9.).

의 글이다. 당시 동아일보는 민족주의와 문화주의를 주지로 내세우며 민족 문화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주장하였으며,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운동에 앞장선 3대 민간지 중 하나였다.³⁴⁾ 현재까지 강평국이 남긴 기고 글에 대해 논의 된 바가 없다. 이 글은 동아일보 지면에 실린 날짜로 유추해보면 3·1만세운동 이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주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여수원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여성 교육과 사회 활동을 펼치던 무렵에 쓴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는 그가 받아 온 교육과 사회 현실에 대한 개인적 견해가 피력되었으며, 향후 그가 가려고 하는 길에 대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강평국은 제주의 첫 여성 유학생이었다. 그는 3·1만세운동의 현장에서 조국의 독립을 외친 독립운동가로, 제주의 첫 여성 교사로, 제주 지역 여성 교육을 이끈 강인함이 내재되었다. 이는 제주지역 초기 여성 교육 운동인 여수원의 슬로건 ‘우리 깨어나자’의 실천을 통해 여성해방론을 주창한 여성운동가 강평국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제목 아래 ‘별부재(別付在) 강평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別付’는 일본의 지명 벳푸 시로 일본 규슈 오이타 현에 있는 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기록에 의하면 강평국은 1926년에 일본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타의 기록에서도 1925년까지는 제주에 머물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에 의하면 최소한 1925년 6월 1일 즈음에서 7월 20일을 전후로 하여 일본 규슈 오이타 현 벳푸 시에 머물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강평국은 여성해방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당시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남태평양 섬들의 사례에서부터 서구 유럽의 남녀관계에 관한 페미니즘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여 글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여성지식인으로서 ‘여성이 깨어야 조국 광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여성도 교육을 통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신념을 이 글이 뒷받침하고 있다. 강평국은 이 글을

34) 박찬승, 『언론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44-153쪽.

통해 약탈혼, 여자를 매매하는 관습, 자유연애, 남녀동등권사상 등에 대해 논하였으며, 결국 결혼의 자유, 연애의 자유, 혹은 사교의 자유 등 여성의 자유 독립에 관한 문제는 공상적 이론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경제적 독립만이 여성해방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주장한다.

1. 「女子解放의 雜感」의 내용 분석

강평국이 기고한 「女子解放의 雜感」은 “과거의 역사를 ‘여자가 남자의 노예이다’ 함을 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역사 이래 지속적으로 남성에게 속박당해 왔던 여성의 현실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강한 논조로 비판하며 글을 시작한다. 이와 같은 남녀 간의 차별에 대해 논함에 있어 여성운동가 강평국은 당시 식민지 조선 안의 상황과 현실 인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구 사회 및 남태평양 주변 섬나라의 사례를 제시하며 조선의 현 상황이야말로 여성들이 깊이 잠들어 있다며 비판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과 평가를 통해 강평국은 현 상황의 타개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글을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글은 서두에 ‘최형’이라는 호칭 이후 ‘형남’이라는 호칭을 반복하며 누군가에게 보내는 서간문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넓게 본다면 조국의 깨어 있는 지식인 여성에게 보내는 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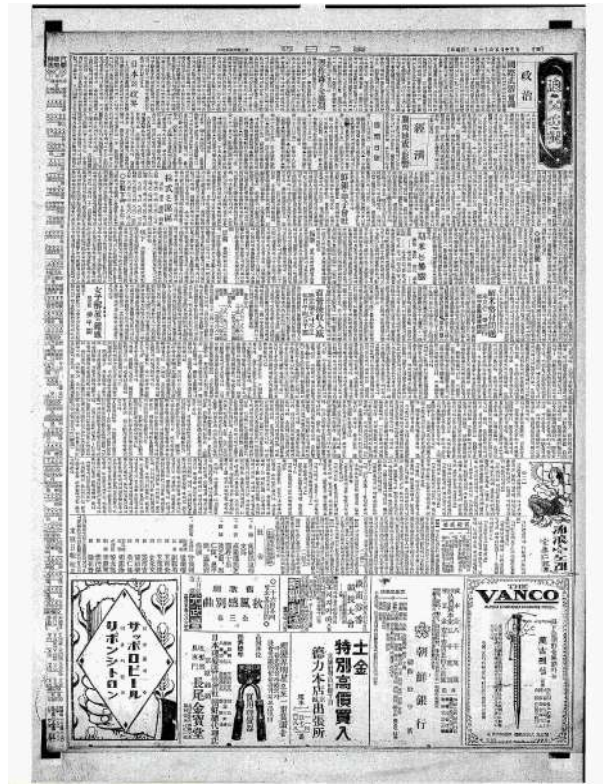
최형! 과거의 역사는 “여자가 남자의 노예이다.”함을 의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그것도 오늘날의 도덕을 아니 법률을 작성하였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까 합니다.³⁵⁾

강평국은 ‘타스마니아’, ‘에라니시아 제도’, ‘박크 섬’, ‘피지’, ‘카일’ 등³⁶⁾의 사례를 제시하며 당시까지 남아 있던 야만적 행동, 약탈혼에 대해

35) 강평국, 「女子解放의 雜感」, 『동아일보』 (1925.6.1.).

36)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

분노를 표하고 있다. 그들은 부부관계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단지 노예를 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자를 약탈하고 있으며 생사여탈의 권리마저도 노예의 주인인 남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이것이 오히려 유희이자 일종의 명예가 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 글에서 강평국이 외국의 사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 여성의 처지와 노예 된 상태이다. 강평국은 당시 사회 저변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던 조선의 양모 현치주의를 배격하고,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하며 가축으로 여기는 남성들의 우월함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림 1〉 동아일보 1925년 6월 1일자에 실린 「여자해방의 잡감」 지면

형님! 우리 여자는 오늘날까지 남자에게 물건시하여 왔으며 가축시하여 왔습니다. 형님! 현대의 남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역사상으로 남자에게 복종하여 왔다하며 혹은 본래 육체의 구조나 두뇌가 남자에게 비교하여 차이가 심하다하여 도저히 가정 상에 관한 일이나 혹은 사회에 대한 문제도 토의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천직은 양모현치주의로 남편을 잘 봉양하고 시부모를 잘 공경하고 아이 잘나서 잘 기르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라고 의학상 증명이니 역사상 유전이니 말하고 완전한 인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생사여탈의 권리마저도 남성들에게 예속된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계의 사조가 춘풍을

만나 어두운 감옥에서 나와 여성의 자유를 찾는 길에 나섰음에도 조선 여성들만은 한밤중으로 여성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빚대 조선의 여인들만은 여전히 “세상의 움직임을 외면한 채 숙면을 취하고 있으며, 옥중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듯 적고 있다.

형님! 사실 우리 여자는 노예였습니다. 생사여탈의 권리를 소지한 남자의 노예였습니다. …(중략)… 형님! 세계의 사조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말랐든 초목이 따뜻한 춘풍을 만나 장차 움을 내어서 초하의 날빛이 반짝반짝 비추일 때 자유자재로 생장의 수도에서 서서 춤추고 노래 부르며 진의 생을 발휘하려고 준비에 분망하고 있습니다. …(중략)… 온 천하의 노예는 그 옥을 발출하여 장차 향할 길의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남자의 노예였던 여자들은 잠을 깨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조선여자만은 밤중이외다. 그대로 숙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옥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³⁷⁾

강평국은 이 글에서 영국의 기계공장공녀 ‘판니’와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 주인공 ‘노라’를 통해 남녀평등권을 실현하고자 노예 된 삶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조선 여성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의 대목에서는 여성운동가로서 조선 여성의 인간 권리 회복과 남녀평등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고자 하는 여성운동가 강평국의 결연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당시에는 파격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며 남녀동등권 사상을 논하고 있다.

이 주창의 내용은 “자기의 만족을 욕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라”는 사상이래에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판니”는 경제적 독립이 확립한 자로 매소부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공장주의 자식인 까닭에 그 자산적 배경에 눈이 먼 것도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라는 사상이래에서 남자의 그것과 같이 우리도 사람인 본체로 보아서 남자와 같은 행동을 하여 보자는 그 이면에는 남녀동등권의 사상이 있는 것이외다.

37) 강평국, 「女子解放의 雜感」, 『동아일보』 (1925.6.1.).



〈그림 2〉 동아일보에 실린 강평국의 「여자해방의 잡감」 부분 발췌

『인형의 집』의 주인공 노라는 아내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찾아 허위와 위선뿐인 ‘인형의 집’을 떠나려 한다. 작가는 노라를 통해 남녀 간의 성역할과 여성 해방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형의 집』은 1879년 처음 발표되자마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비판을 받은 작품으로 19세기 말 당시 유럽에서도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던 결혼과 남녀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헨리크 입센은 다수의 사회극을 발표했으며 “오늘날 사회에서 여성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라는 언급과 함께 발표한 이 희곡을 통해 전 세계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아를 발견하려는 ‘노라’라는 인물을 통해 ‘노라이즘’을 탄생시켰다. 이 작품은 ‘최초의 페미니즘 희곡’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³⁸⁾ 강평국은 노라이즘을 탄생시켰던 서구 인물 ‘노라’를 조선으로 초대하여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조선의 여성들에게 각성의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다. 비록 조선의 사회에서 노라와 같은 이를 용허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지만 노라의 삶을 조선의 상황에 대비시키면서 현재 조선의 상황이 얼마나 우매하고 여성의 인권에 대해 몰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형님! 이러한 사실이 조선에 나타났다고 가정하면 조선사회가 이를 용허하겠습니까? 이연이니 혹은 매음자이니 또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정조의 관념을 부스는 도덕의 위반자이니 국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법률의 집

38) 헨리크 입센, 『인형의 집』, 안미란 옮김, 민음사, 2010.

축자이니 하여 많이 떠들 것이며 많은 문제꺼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³⁹⁾

당시 서구 유럽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파격적인 소재의 글을 인용하면서 강평국은 자신이 거론한 사례들이 조선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조선사회가 정조의 관념을 운운하고, 도덕의 위반과 국가 질서 문란, 법률에 의한 처벌 등으로 수많은 문제꺼리를 양산했을 거라며 사회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강평국이 바라본 조선의 여성 문제는 조선 사회 근저에 깊이 박혀있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며, 여성을 남성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삼영⁴⁰⁾ 씨는 우리 빈약자 여자를 왜 그리도 잘 이해하여 주는지요 특히 여자는 씨의 참사에 대하여 만곡의 누를 금치 못할 것이외다. 이 비평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소위 그 타산적 도덕을 비방하는 자와는 아니 우리 여자를 언제든지 노예로 취급하려고 하는 자와는 힘이 없고 돈이 없으나마 싸워야하겠습니다. 형님, 우리도 어서 이 모든 선진자의 뒤를 이어 목적지에 향할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노골로 말하면 소위 결혼자유, 연애자유, 혹은 사회에 대한 사교자유, 전부여자의 자유 독립에 관한 문제는 공상적 이론에서 해결치 못하고 즉 물질적 유물주의의 경제적 독립에 있다고 이것으로 우의를 표하라 하며 떠나나이다.⁴¹⁾

강평국은 당시 일본의 사회주의 사상가이자 ана키스트였던 대삼영의 권위를 빌어 여자들에게 노예로 취급하고자 하는 자들과 싸워야 함을 직설하며 서구의 여성해방론자들의 뒤를 이어 남녀평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결혼의 자유, 연애의 자유, 혹은 사교의 자유 및 여성의 자유 독립에 관한 문제를 공

39) 강평국, 「女子解放의 雜感」, 『동아일보』 (1925.6.1.).

40) 대삼영(大杉榮, 오스기 사카에)은 일본의 작가, 사상가, 저널리스트로, 메이지 [明治, 다이쇼[大正] 시대 일본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이자 ана키스트다. 세계를 돌며 국제 연대를 꾀했던 그는 독립운동가 이동휘, 여운형 등과 만나 연대를 꾀했으며, 베트남의 호치민과도 연대하였다. 관동대지진 직후 헌병사령부에서 39세로 징사하였다.(출처: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두산백과)

41) 강평국, 「女子解放의 雜感(屬)」, 『동아일보』 (1925.7.20.).

상적 이론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은 경제적 독립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⁴²⁾는 울프의 논의와 연결시킬 수 있다. 강평국의 여성운동은 경제적 독립을 통한 여성해방으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주의 여성운동과도 맥을 같이 한다. 강평국 스스로가 교육 수혜의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받아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기쁨을 마련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삶을 영위하였듯 조선의 여성들 또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경제적 독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여성의 자유가 성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강평국은 이 글을 통해 여성운동가로서 남성들에게 예측된 사회적 지위와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써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기초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주장한다.

2. 「女子解放의 雜感」에 나타난 여성해방론

이 글이 기고된 1925년 당시의 사회적 풍조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현모양처를 최고로 보며, 삼종지도를 따르며 순종적이고 단아한 여성상을 중요시 여기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남성에게 예측된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을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었고,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사는 여성들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었다. 남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멸시받고 예측된 여성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는 더욱 더 요원한 일이었다. 강평국이 보았던 여성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신여성이 거리를 활보하던 경성이 아닌 지방의 농어촌 지역, 그것도 육지와는 닿을 수 없던 고도의 섬을 중심으로 이어온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강평국은 권보드래의 글 『연애의 시대』⁴³⁾에 나오는 신여성들과 동일한 사회적 경험과 좌절, 신여성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지향점은 시대의

42)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이미애 옮김, 민음사, 2016, 18쪽.

43)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 2003.

벽 앞에 좌절했던 그들과는 달랐다. 그런 연유로 강평국의 사회적 실천 또한 달라진다. 경계인으로서 강평국은 여성의 차별이 심한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자랐으나 일찍 개화한 가문에서 태어나 학문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고, 가톨릭계 여학교에서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깨우쳤으며, 식민지 조선의 여성으로서 조선을 억압하던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생활을 하였으며, 기층 조선의 여성들에 반하는 신여성의 교육 유산을 수혈 받은 1세대였으나, 제주인임을 잊지 않았던 제주 여성이었다. 경계에 선 자로서 강평국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삶을 적용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으며, 제주 사회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작은 불빛을 전하고자 노력한 여성운동가였다.

1920년대에는 새로운 흐름의 여성운동이 시작되었다.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경제의식이 성장하였으며, 경제자립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다. 당시의 여성운동은 한말 애국계몽운동에서 주장된 여성교육을 통한 국력신장으로서의 여성운동적 성격의 범주 내에서 국권회복을 지향하는 새로운 여성운동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급진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청년지식여성층에서는 계몽적 여성교육운동만으로는 여성해방을 이룩할 수 없으며 여성들에게 독립적 삶을 영위할 능력을 계발시키는 직업교육이 집중적으로 행하여 졌으며, 1924년부터는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수용, 발전시키게 된다.⁴⁴⁾ 허정숙은 1924년 11월 3일자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 「女子解放은 經濟的 平等이 根本」에서 여성이 남성의 노예가 되고 노리개가 되는 이유는 남자에게 붙어사는 기생충이 되어 날마다 먹고 사는 물질을 공급받고 일정한 생활조건을 남의 수중에 맡기는 까닭으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 해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⁵⁾

이와 같은 여성운동의 변화와 맞물려 강평국은 “여자는 남자의 노예다.”라는 강한 어조의 표현으로 글을 시작함으로써 여전히 속박되어, 남

44) 박용옥, 『여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79-182쪽.

45) 秀嘉(허정숙), 「女子解放은 經濟的 平等이 根本」, 『동아일보』 (1924.11.3.).

성들의 노예로 살아가던 조선의 여성들, 제주 여성들의 해방의 길을 찾고자 신문지상에 글을 씀으로서 지식인 사회에서부터 새로운 인식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보통학교를 마치고, 경성 유학을 통해 고등교육까지 마친 강평국의 눈에 비친 조선 여성의 삶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던 것이다. 경성 유학을 통해 만난 신식 문물과 신여성 등의 새로운 사회상은 고향 제주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변화하던 사회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던 어머니로 대표되는 제주의 여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기고문에 스며들었던 것은 아닐까?

「女子解放의 雜感」은 여성을 업신여기는 사회적 풍토에 대항하는 글이며, 언제나 여성을 노예로 취급하고자 하는 다수의 남성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지식인 남성들을 향한 글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 여성만을 대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보다는 해방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식인들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기고문으로 볼 수 있다. 조선 땅에서 여성의 자유로움에 대해 감히 이야기를 개진하기 어렵던 시절, 세상의 흐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여성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글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3·1 만세운동 후 교단에 선 강평국은 독립에의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고향 제주에서 신성여학교와 관립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동창인 최정숙과 함께 ‘여자장학회’를 조직하고 ‘여수원’을 설립하는 등 누구보다 여성 교육에 매진하였으며, 여성이 바른 인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는데 앞장서야 함을 굳게 믿고 있었다. “모든 가정살이는 남자도 여자와 반반씩 해야 할 것”이며, 남자는 처첩을 몇 명씩 두면서 여자는 한 번 개가한다 해도 손가락질 하니 도대체 되먹지 못한 세상이라고 흥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강평국의 남자 후배이자 일본에서 같이 활동한 김정순 씨의 육필증언을 통해서도 강평국의 인식을 알 수 있다.⁴⁶⁾

강평국은 1925년 12월 26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 여자 청년회 창립총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제주여자청년회는 창립총회에서 ‘힘써 배우

46) 허영선, 「불꽃의 여인 강평국」,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432쪽.

고, 굳센 단결로 삶의 권리와 자유를 찾기 위해 제주 여성의 신기치를 내 걸었다. 이들은 삶의 권리와 자유는 배움과 여성의 단결에서 나오며 여성 해방운동과 이에 필요한 지식의 함양에 힘써야 함을 강령으로 내 세웠다. 강평국은 임시의장으로 강령과 규약을 통과 시켰으며, 총회에서는 ‘회원교양(會員敎養), 문맹퇴치(文盲退治), 풍속교정(風俗矯正), 미신타파(迷信矯正)’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⁴⁷⁾ 강평국은 단지 학문의 틀에 갇혀 이상을 쫓는 이가 아닌, 실천하는 지성이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여성의 해방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한 여성 운동가였다. 이와 같은 강평국의 주체적 의지가 담긴 「女子解放의 雜感」은 시대의 흐름을 앞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선도하며 사회의 주체로서 여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었지만, 당시 여성의 문맹률⁴⁸⁾이 90%가 넘었다는 점에서 「女子解放의 雜感」은 강평국과 같은 소수의 교육을 수혜 받은 여성들 간의 논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전상숙(2001)이 제시한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한계⁴⁹⁾와 맥을 같이 한다.

IV. 맺음말

본고는 강평국의 삶과 여성해방론을 강평국의 기고문 「女子解放의 雜感」을 통해 살펴보았다. 당시 사회상과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의 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정숙과 함께 신성여학교에서 공부하며 함께 독립운동에 가담하였으며, 의학공부를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나 일본에서 독립의 열정을 토해내다 자신의 몸을 살피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달리한 여성운동가 강평국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

47) 시대일보, 「女子青年會創立者 濟州女性の 新旗幟」, 『時代日報』(1926.1.3.).

48)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earch/search.do> (검색일: 2019.10.14.).

49) 전상숙, 「조선여성동우회를 통해서 본 식민지 초기 사회주의 여성지식인의 여성해방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2), 2001, 54쪽.



〈그림 3〉 아가다 강평국 묘비-황사평묘역

한다. 강평국은 여성에게도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성운동가로서 남성들에게 예측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한계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주장하였다. 이는

그가 하나의 사조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몰두한 결과이며, 결국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경제적 독립에 이르는 길을 꿈꾸었으며, 경제적 독립을 통한 여성의 자유, 여성의 해방을 위해 부단히 목소리를 높였다. 강평국의 일대기를 정리한 허영선은 그녀의 삶을 ‘불꽃’에 비유한다. 짧은 생애를 살았음에도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불태웠다. 그가 세상을 뜬 지 50여년이 흐른 1981년 11월 10일, 따스한 햇살이 내비치던 가을이 무르익을 무렵 ‘아가다 강평국 추모비’ 건립이 있었다.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동기들과 후배들은 그의 불꽃같은 삶을 잊지 않았고, 그의 묘가 어디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뜻을 기리며 추모비에 그의 삶을 담은 글귀 하나를 새겨 놓았다.

“습으다 時代의 先覺者요 女性의 燈불인 그는 3·1運動 때 피흘여 靑春을 불살렸고 靑雲의 뜻을 품고 日本으로 건너갔으나 품은 理想 이루지 못한 채 애달은 生涯 담고 여기 길이 자노니 지나는 손이 앞에 발멈처 戰士의 孤魂에 명복을 빌지어다.”⁵⁰⁾

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황사평 묘역, 아가다 강평국 비문.

강평국은 1900년에 태어나 1933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짧았지만 열정적인 삶이었다. 그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관립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재학 중에는 앞장서서 3·1만세 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교사로 부임한 이후에도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학생들을 일깨웠으며, 교육 받지 못하는 제주의 여성들을 위해 여수원을 설립하였고, 야학을 운영하면서 ‘우리 깨어나자!’라는 슬로건으로 여성들이 긴 잠에서 깨어날 것을 독려했다. 이후 폐교된 모교 신성여학교의 재기를 불태웠다. 일본군에 의해 명신학원이 사라지자 원대한 꿈을 품고 일본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제주 여성 최초의 유학생이 되었다. 보다 큰 꿈을 위해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의학교육을 받으면서도 식민지 청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경에서 여성청년동맹 초대 집행위원장을 맡아 맹렬하게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근우회 동경지회의 의장단으로 활약했다.⁵¹⁾ 학업도 힘겨웠지만 지하에서 독립운동까지 하면서 감기가 폐렴이 되도록 몸을 돌보지 못했고 결국 폐렴이 늑막염이 되자 급히 군대환⁵²⁾을 타고 고향으로 귀향해 80세 노모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다.⁵³⁾

강평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의 광복 74주년에 이르러 그의 조국 대한민국은 그의 불꽃같은 삶을 조금이나마 인정해 주었다. 비록 일본에서의 활동으로 한정되기는 하였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강평국이라는 이름은 낯설다. 묘비 뒷면을 보면 묘비를 세운 이들의 마음이 전해진다. 강평국이 세상을 떠난 후 47년 만에 세워진 묘비는 세월의 흐름을 따라 세워진지 40여년의 시간이 다시 흘렀다. 그들의 뜻이 깃든 묘비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잊혀진 무연고 묘지인양 여전히 홀대 받고 있다. 홀대 받는 것은 묘비 뿐이 아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쳤으며,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여성들

51) 강평국, 「在東京青年團 合同委員懇談」, 『동아일보』 (1928.1.18.).

52) 군대환(君代丸)은 1923년 12월 15일부터 제주와 오사카를 정기적으로 오갔던 여객선.

53) 최정숙, 「내가 걸어온 길」, 『제남일보』 최정숙 증언, 고익조 기자, (1973.9.17-10.8.).

의 각성을 깨우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던 강평국의 삶이 후대에게 잊히어 홀대받고 있는 것이다. 100여 년 전, 누구보다 먼저 세상의 변화를 깨닫고 내 삶의 안위가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던 강평국의 삶을 재조명하는 일이야말로 제주 여성을 넘어 이 땅 여성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이며,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고는 강평국의 「女子解放의 雜感」을 중심으로 그의 여성운동과 여성해방론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향후 동시대 여성운동가의 활동을 토대로 심층적 비교 연구와 강평국의 일본에서의 활약상을 담은 자료 분석을 통해 강평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기며, 부족하나마 본 연구가 여성운동가 강평국 연구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이수, 「근대 한국 100년과 여성의 삶」, 『경제와사회』 44, 1996.
- 강평국, 「女子解放의 雜感」, 『동아일보』 (1925.6.1.).
- _____, 「女子解放의 雜感(續)」, 『동아일보』 (1925.7.20.).
- 고창석·이문교·김순이·강만생·박찬식의, 『제주여성사Ⅱ-일제강점기』, 제주발전연구원, 2011.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mpva/main.do>(검색일: 2019.8.14.)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earch/search.do> (검색일: 2019.10.14.)
- 국사편찬위원회, 「三·一 獨立宣言 關聯者 訊問調書, 京城女子高等普通學校 示威關聯者動情及性行調回」,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3 권 三·一運動 III, 1990.
-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 2003.
- 김인덕, 「일제시대 제주 출신 재일 여성 활동가들의 투쟁」, 『제주도사연구』 8, 1999.
- 동아일보, 「濟州의 女子教育熱」, 『동아일보』 (1921.3.25.).
- _____, 「在東京青年團 合同委員懇談」, 『동아일보』 (1928.1.18.).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검색일: 2018.4.15.)
- 박용옥, 『여성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박용옥·윤선자·박경목·김용달·반병률,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I』, 국가기록원, 2016.
- 박찬승, 『언론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_____, 「3·1운동기 서울의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의 재구성-3월1일과 5일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5, 2019.
-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이미애 옮김, 민음사, 2016.
- 시대일보, 「女子青年會創立者 濟州女性の 新旗幟」, 『時代日報』 (1926.1.3.).
- 신성학원총동문회, 『신성백년사』, 2009.
- 신영숙, 「日帝下 韓國女性社會史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1989.

양진건 외,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제주도 교육청, 2011.

이송희, 『근대사 속의 한국 여성』, 국학자료원, 2014.

전상숙, 「『조선여성동우회』를 통해서 본 식민지 초기 사회주의 여성지식인의 여성해방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2), 2001, 33-57쪽.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 1996.

제주특별자치도,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 도서출판 각, 2005.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 문화유적 100』, 2009.

중외일보, 「總督政治彈劾 檢束者五十」, 『中外日報』(1927.8.9.)

최은희, 『조국을 찾기까지 上, 中, 下』, 탐구당, 1973.

최정숙, 「내가 걸어온 길」, 『제남일보』 최정숙 증언, 고익조 기자, (1973.9.17.~10.8.).

한금순, 「강평국의 3·1운동 참여와 수감」, 『제주도연구』 51, 2019.

허영선, 「불꽃의 여인 강평국」,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秀嘉伊(허정숙), 「女子解放은 經濟的 平等이 根本」, 『동아일보』(1924.11.3.).

헨리크 입센, 『인형의 집』, 안미란 옮김, 민음사,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검색일: 2018.7.2.)

ABSTRACT

The Life of Kang Pyoung-guk and Women's
Movement Looking through
"The Thoughts of Women's Liberation".

Lee, Jae-sub *

This paper analyzes Kang's life and the women's movement through the article *"The Thoughts of Women's Liberation"*, which was contributed twice by Kang Pyoung-guk to the Dong-A Ilbo in June 1925. Kang Pyoung-guk was a female activist who tried to convey a small light to women who were living breathlessly in Jeju society. Kang graduated from Sinseong Girls' School, the first female school in Jeju, and went to Kyung-sung to study. Kang took the initiative in the March 1st Movement in Seoul. After graduation, Kang established 'Yeosuwon' for the education of women in Jeju, and went to Tokyo, Japan, where Kang continued her studies as a medical student, while shouting for the independence of her country and the liberation of women. Kang applied her beliefs to life without faltering. *"The Thoughts of Women's Liberation"* is an article against the social climate in which women were despised, and can be understood as an article directed at a number of men who want to treat women as slaves at any time. In this article, female activist Kang Pyoung-guk argued that women should be given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made efforts to expand the base of women's education, while paying attention to women's

* Ph.D. candidate in Korean Studie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economic independence as a way of fundamentally addressing the social status and limitations of women. It's a short article for the newspaper, but the only one he wrote herself is worth it.

Key-words: Kang Pyoung-guk, Jeju Island, Independence Movement, Women's Movement, Women's Liberation

논문투고일: 2019. 08. 29.

심사완료일: 2019. 10. 08.

게재확정일: 2019. 10. 08.

